

한국어의 ‘하-’와 관련된 조어의 한 방식에 대하여*

김미연 · 서종학**

Abstract

Kim Miyuen · Suh Jonghak. 2015. 12. 31. **One Type of the Word-formation related to ‘ha-’(하-) in Korean.** *Bilingual Research* 61, 31-44. This study aims to argue for two purposes. One is to find a type which a root is precede element of ‘x하-’. The other is assert that ‘하-’ is a word and ‘x하-’ is a compound word. In other words, we try to reveal that ‘하-’ can be integrated into the ‘verb root’, such as shown in ‘비롯하-’. Through this, we claim that ‘하-’ is classified as the ‘word’. The first reason is to reconsider the double way that the one morpheme is classified differently as the suffix or the word. Another reason is that it is hard to classify ‘시키-, 드리-’ which are replaced ‘하-’ as the suffix. In this article, for this, we used the synchronic way and diachronic way together. We can explain briefly a grammar of ‘하-’ in ‘x하-’ and ‘x를 하-’ by this assertion. (**Yeungnam University**)

【Key words】 word-formation(조어법), compound word(합성어), derivational word(파생어), ‘ha-(하-)’, ‘x-ha-(x-하-)’, ‘siki-(시키-)’, ‘deuri-(드리-)’

* 이 글은 2015년 8월 28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이중언어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하고 보완한 것이다.

** 김미연(영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학과 박사과정, 제1 저자), 서종학(영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교신저자)

1. 서론

한국어교육은 한국의 언어, 문학, 교육 등을 비롯한 한국 문화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임은 불문가지다. 예를 들면, 한국어의 문법에 기반을 두고 한국어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문법 교육에 임하는 것이 올바른 과정이 아닐까. 이런 점에서 이 글은 한국어의 ‘하-’(<ㅎ-)와 관련된 조어 상의 한 문제에 대해 논함으로써 한국어 문법교육의 한 부분에 보탬이 되려 한다¹⁾.

기존의 논의에서 ‘하-’가 후행하여 생성되는 단어(x하-)들은,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행어가 명사나 부사 또는 어근²⁾인 경우로 기술되었다. 특이한 것은 ‘하-’는 동사나 관형사에 후행하여 단어를 생성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³⁾

- (1) ㄱ. 명사+하-: 일하다, 공부하다, 다정하다
- ㄴ. 부사+하-: 잘하다, 못하다, 너무하다,
- ㄷ. 어근+하-: 깨끗하다

그런데 ‘비롯하다’의 경우에는 ‘비롯-’이 동사의 어근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비롯-’이 (1 ㄱ-ㄴ)과 같은 명사나 부사도 아니고 (1 ㄷ)과 같은 부

1) 국어 문법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이 추상적인 문법과 의사소통 기능의 향상을 위한 문법이라는 면에서 달리하여야 한다는 연구(한송화(2006) 강현화(2007) 등)가 다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논하고자 하는 ‘X하-’에 대해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서인 국립국어원(2005:302-310), 서울대학교 국어연구소 편(2014:503-510)과 국어 문법서인 남기심·고영근(1993:202-203), 고영근·구본관(2008:226-228)의 분류나 설명이 다른 점을 찾을 수 없다. 이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이 국어 문법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어 문법에서의 논의를 따로 떼어 놓고 한국어 문법을 논의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2) 여기서 어근은 ‘독립성이 없는 실사’를 뜻한다.

3) 그리고 ‘x하-’는 대개 동사 또는 형용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사성 어근도 아닌, 동사의 어근이라는 점이다.

한편, ‘x하-’에 대한 조어법 상의 논의는 크게 둘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합성어(compound word)로, 다른 하나는 파생어(derivational word)로 보는 견해가 그것이다. 전자에 따르면 ‘하-’가 단어라는 것인데 ‘하-’의 의미가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이를 기능동사(서정수 1991) 또는 경동사(이정택 2004) 등으로 명명하기도 하였다. 임홍빈(1979), 심재기(1982), 남기심·고영근(1993), 김창섭(1994), 고영근·구본관(2008) 등은 ‘하-’를 접미사로 분류하였다. 전후자의 공통점은 ‘하-’가 구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못함에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의미가 없지만 여러 상황에서 의미가 있음이 분명한다는 전자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없다는 후자에서 그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에 착안하여 이 글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작성된다.

(2) ㄱ. 한국어의 ‘하-’와 관련된 조어의 한 방식을 밝힌다.

ㄴ. ‘x하-’의 ‘하-’는 단어이고 따라서 ‘x하-’는 합성어다.

즉, ‘비롯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는 ‘동사 어근’에 통합되는 경우가 있음을 밝히려 한다. 이를 통하여 ‘하-’를 단어로 분류하자고 주장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의 형태소를 접미사(‘일하-’의 ‘하-’)로 또는 단어(‘일을 하-’의 ‘하-’)로 달리 분류하는 이중적인 면을 재고하자는 것이고, 다른 이유는 ‘하-’를 대체하고 있는 ‘시키-, 드리-’를 접미사로 분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구성하는 연속체를 파생어가 아닌 합성어로 보고자 한다. 두 번째 이유와 관련하여 ‘포함하-, 감사하-’를 ‘포함시키-, 감사드리-’로 대체하는 경향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 글에서는, 이를 위하여 공시적인 방법과 통시적인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2. ‘하-’와 관련된 조어의 한 방식

일반적으로 ‘하-’는 (1)에서 보듯이 명사, 부사, 어근에 통합되는 반면에 동사나 관형사에는 통합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고 기술되었다. (3)은 (1)에 더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인용된 예들 중 일부를 보인 것이다.

- (3) ㄱ. 명사+하-: 일하다, 나무하다, 노래하다, 말하다, 밥하다; 되풀이하다, 낚시질하다, 잘못하다; 무엇하다; 듯하다, 척하다; 공부하다, 가입하다, 감사하다, 분하다; 데모하다, 테스트하다, 유탄하다
- ㄴ. 부사+하-: 잘하다, 못하다, 너무하다, 같이하다, 다하다, 더하다, 덜하다, 아니하다, 분명하다, 슬쩍하다, 오래하다
- ㄷ. 어근+하-: 따뜻하다, 비슷하다, 서늘하다, 시원하다, 착하다, 망하다

(3ㄱ)은 명사에 ‘하-’가 통합된 단어인데 선행명사가 고유어(‘일하다’ 등), 한자어(‘공부하다’ 등), 외래어(‘데모하다’ 등)인 경우이다. 명사의 경우 형식명사인 ‘듯, 척’ 등에도 통합되는 것이 주목된다. (3ㄴ)은 부사에 ‘하-’가 통합된 단어인데 ‘너무, 같이’ 등에서 보듯이 파생부사에도 통합되었다. (3ㄷ)은 독립성이 없는 어근(‘따뜻’ 등)과 한자어(‘망’ 등)에 ‘하-’가 통합된 예이다.⁴⁾

현대한국어의 경우 (3)에 속하지 않는 ‘비롯하다’에 관심을 가진다. ‘비롯하-’는 ‘비롯-’에 ‘하-’가 통합된 구조로 파악되는데, ‘비롯-’은 명사도 부사도 아닌 어근이다. 이렇게 보면 (3ㄷ)으로 분류될 듯하나 ‘비롯-’은 부사성 어근은 아니고 또 기원적으로 동사 어근에 속하기 때문에 조급은 다르다.

4) ‘따뜻, 비슷, 시원’ 등의 어근은 대개 부사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듯하다.

‘비룻-’은 고대한국어와 중세한국어에서도 어근의 형태는 그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래의 예에서 확인된다.

- (4) ㄱ. 元曉亦是方言也 當時人 皆以鄉言稱之始旦也(三國遺事;元曉不羈條, 1281~3)
 ㄴ. 僧矣元叱乎 造排爲臥乎 長城郡地 白巖寺…(白巖寺貼文, 1378)
 ㄷ. 配所到日始叱 計數爲乎矣…(大明律直解, 1395)
- (5) ㄱ. 一劫은 修行의 비르소믈 니르시고(능엄경언해;4;21, 1462)
 ㄴ. 비르슬 숙倣(석봉천자문;28, 1583)
 ㄷ. 혼인의 비로숨을 중케흐신 배니라(소학언해;2;61, 1586)

(4ㄱ)의 ‘元曉’와 ‘始旦’의 ‘元’과 ‘始’를 남풍현(1975)에서 “비룻”으로 해석한 바 있다. 또 중세한국어의 자료 중 (4ㄴ)의 ‘元叱’과 (4ㄷ)의 ‘始叱’은 중세한국어 ‘비룻-, 비룻-, 비룻-’에 대응하는 형태를 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5)의 예에서 중세한국어 ‘비룻-, 비룻-, 비룻-’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비룻-, 비룻-, 비룻-’에 ‘흐-’가 통합된 예는 발견되지 않는다. 차자표기에서도 ‘元叱-爲, 始叱-爲’ 등의 형태는 보이지 않고⁵⁾ 15-16세기의 자료에서도 ‘비룻흐-’는 문증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대한국어의 ‘비룻하-’는 중세한국어 동사 어근 ‘비룻-(>비룻-)’에 ‘하-’가 통합된 것으로 설명된다. 여기에서 ‘하-’가 명사나 부사가 아닌 동사 어근에도 통합되는 예를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⁶⁾

여기에 더하여, ‘비룻하-’와 같은 방식의 조어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5) 釋迦牟尼佛隱 初叱◇爲隱...(구역인왕경)의 ‘初叱◇爲’에서 ‘흐’가 ‘비룻’으로 해독되는 ‘初叱’과 통합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 사이에 관독되지 않은 글자(◇)가 있어서 그렇게 보기 힘들다.

6) 언제부터 ‘비룻흐-’ 또는 ‘비룻하-’가 사용되었을까는 관심의 대상이지만 이 글의 주제와 직접 관계되는 것이 아니어서 보류하기로 한다.

‘삼가하-’를 들 수 있다. “음식물을 삼가하세요, 고성방가를 삼가하기 바랍니다”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삼가하-’는 ‘삼가-’의 비표준 형태로 규정되는 것인데 그 구조는 ‘삼가-하-’ 또는 ‘삼가-아-하-’로 분석된다.⁷⁾ 이 글에서는 전자의 구조로 분석한다. 그 이유는, 후자로 분석할 경우 그 의미는 ‘삼가서 하는 것’인 데 비해 전자의 경우는 ‘삼가서 안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자의 의미가 ‘삼가하-’의 의미와 같은 것이다.

‘삼가-’는 중세한국어에서도 사용되었다. (6)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6) ㄱ. 삼가 놀란 모습 먹디 말라(법화경언해;3;192, 1463)
- ㄴ. 삼갈 신 愼(석봉천자문;13, 1583)

그런데 ‘삼가ㅎ-’가 중세한국어 또는 근대한국어에 사용되었다는 견해가 있다. 다음 예를 그 근거로 들었다.

- (7) ㄱ. 종돌히게는 화열히 호디 삼가ㅎ더라(번역소학;9;84, 1517)
- ㄴ. 집이 가난호디 제스를 삼가ㅎ더라(동국신속삼강행실도;열1;31, 1617)
- ㄷ. 말숨을 굴히내 ㅎ샤디 오직 삼가ㅎ더시다(소학언해;3;14, 1744)

민현식(2007:86)에는 (7)의 ‘삼가ㅎ-’를 하나의 단어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문맥을 보면 ‘삼가’는 부사형으로 사용되었고 ‘ㅎ-’는 (대)동사로 사용된 것이어서 ‘삼가 ㅎ-’와 같이 통사적 구조로 파악하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 민현식(2007)의 설명대로라면 ‘삼가-’와 ‘삼가ㅎ-’는 의미가 같아서 서로 대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7)의 예들은 ‘삼가서 하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삼가ㅎ-’로 분석하면 그 의미가 정반대로 되어 ‘하지

7) 설부를 예단인지 몰라도 비표준 형태인 ‘삼가하-’가 ‘비롯하-’와 마찬가지로 표준 형태로 될 가능성이 있다.

않다’의 의미가 된다. (7ㄴ)을 예로 들면, ‘집이 가난하지만 제사를 삼가(서) 하더라’란 뜻으로 이해하여야 하는데, (7ㄴ)대로라면 ‘집이 가난하지만 제사를 지내지 않더라’란 뜻이 되어 버린다. 따라서 (7)은 (8)과 같이 분석하여야 한다.

- (8) ㄱ. 종돌히게는 화열히 호디 삼가 하더라(번역소학;9;84, 1517)
- ㄴ. 집이 가난호디 제스를 삼가 하더라(동국신속삼강행실도;열1;31, 1617)
- ㄷ. 말숨을 굴히내 하사디 오직 삼가 하더시다(소학언해;3;14, 1744)

‘삼가하-’가 한 단어로 사용되는 과정은 ‘비롯하-’와는 조금 다른 듯하다.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사형 ‘삼가’는 ‘삼가(서) v’와 같이 다른 동사 앞에 나타나서 이를 수식하는 것이었는데 ‘하-’가 v의 자리에 오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삼가하-’로 인식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⁸⁾ ‘삼가하-’의 조어를 인정한다면 ‘삼가-’란 동사 어근에 ‘하-’가 통합된 예를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⁹⁾

지금까지 ‘비롯하-, 삼가하-’에서 ‘하-’는 동사 어근(비롯-, 삼가-)에 통합하여 하나의 단어를 형성하는 것으로 설명된다.¹⁰⁾

8) ‘삼가하-’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도 위의 각주와 같은 이유에서 보류하였다.
 9) 동사 어근에 ‘하-’가 통합된 예로 ‘더하-’를 들 수 있다. 이는 ‘더-하-’ 또는 ‘더-하-’로 분석되는데, 전자는 동사 어근에 ‘하-’가, 후자는 부사 ‘더’에 ‘하-’가 통합된 것으로 설명된다. ‘잘하다:못하다’에 견주어 ‘더하다:덜하다’를 생각하면 후자의 분석이 타당하다. 그러나 전자의 분석도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 여기에 더하여 ‘그속-’과 ‘고디식-’의 예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10) 중세한국어에서 ‘하-’가 통합된 예를 몇 가지 더 찾을 수 있다. ‘곤하-’와 ‘포라하- 발가하-’ 등이 그것이다. 전자는 부사 ‘곤’에 ‘하-’가 통합된 반면에, 후자는 형용사 어근 ‘포라-’에 어미 ‘-아’가 통합된 형태에 ‘하-’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현대한국어 ‘비롯하-, 삼가하-’와는 다른 구성이다.

3. 합성어 ‘x하-’

현대한국어에서 동사 어근에 통합될 수 있는 것은 굴절어미와 접미사와 단어뿐이다. (9ㄱ)은 어근 ‘잡-’에 굴절어미 ‘-다’가 통합된 예이고 (9ㄴ-ㄷ)은 접미사 ‘-이-, -답-’이, (9ㄹ-ㅁ)은 단어 ‘보-’가 통합된 예이다.

- (9) ㄱ. 잡다 : *잡을다, *잡은다
- ㄴ. 보이다 : *보를이다, *보는이다
- ㄷ. 사람답다 : *사람을답다, *사람은답다
- ㄹ. 넘보다 : *넘을보다, *넘은보다
- ㅁ. 알아보다 : 알아를보다, 알아는보다

(9ㄱ)에서, 동사 어근 ‘잡-’에 대격조사 ‘을/를’이나 보조사 ‘은/는’ 등이 통합된 예는 성립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접미사 ‘-이-, -답-’이 있는 (9ㄴ-ㄷ)의 ‘보이-, 사람답-’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를이다, *사람을답다’ 등과 같은 구성도 용납되지 않는다.

한편, (9ㄹ)에서 동사 어근 ‘넘-’에 ‘을/를, 은/는’ 등이 통합된 예도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알아보다’의 경우에는 ‘알아를보다’란 구성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9ㄹ)의 ‘넘보-’는 합성어이긴 하지만 한 단어로 굳어져서 그 어근들이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¹¹⁾ (9ㅁ)의 ‘알아보-’도 합성어이지만 ‘알아를보다’의 구성이 가능한 것은 두 어근이 구의 성격을 여전히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답-’과 같은 접미사가 아니기 때문이고 (9ㅁ)의 ‘보-’와 같은 위상을 지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논리를 다음에 적용해 보자.

11) (9ㄹ)의 ‘넘보다’에서 ‘보-’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넘을보다, *넘은보다’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그 구성이 현대한국어에서 보면 비통사적 구성이란 데 있을지 모른다.

- (10) 가. 일하다 : 일을 하다, 일은 하다, 일도 하다
 나. 잘하다 : 잘을 하다, 잘은 하다, 잘도 하다
 다. 비롯하다 : 비롯을 하다, 비롯은 하다, 비롯도 하다
 르. 삼가하다 : 삼가를 하다, 삼가는 하다, 삼가도 하다

명사 ‘일’과 부사 ‘잘’에 ‘하-’가 통합된 (10가-나)에서 ‘일을 하다, 잘을 하다’가 가능한 것은 ‘하-’가 접미사가 아닌 단어이기 때문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10다-르)에서 ‘비롯을 하다, 삼가를 하다’가 허용되는 것도 같은 논리로 설명이 된다. 따라서 ‘하-’를 접미사가 아닌 단어라고 생각하고 ‘비롯하-, 삼가하-’는 합성어라는 주장에 동의한다.¹²⁾

‘하-’를 단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중세한국어에서 더 찾을 수 있다. ‘포라흐-’는 형용사 ‘포르-’에 어미 ‘-아’가 통합되고 거기에 다시 ‘흐-’가 통합된 것으로 설명된다. ‘포라-’와 ‘흐-’ 사이에 어미 ‘-아’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은 전후의 형태가 단어임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

‘하-’를 단어로 분류하면 문법 기술상에 어떤 이점이 있을까. ‘일하-’와 ‘일을 하-’는 의미는 같은데, 전자는 형태론적 구성이고 후자는 통사론적 구성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일하-’의 ‘하-’를 접미사로 분석하고 ‘일을 하-’의 ‘하-’를 동사로 분류하기도 한다.¹³⁾ 이 글에서는 두 ‘하-’를 모두 단어로 보자는 것인데 이럴 경우 의미가 동일한 ‘하-’를 하나의 형태로 파악하고 설명하는 이점이 있다. 즉 문법 기술의 간편성이라는 이점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수용한다면 ‘일하다, 잘하다, 비

12) 어근과 ‘하-’의 분리현상을 ‘하-’의 성질이라기보다는 어근의 특성이라는 견해가 있다. ‘당하다, 분하다’와 같이 어근이 일음절인 경우 분리되지 않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는데, ‘당#하다’의 경우는 찾기 어려우나 ‘분은 하다’와 같은 분리는 가능할 듯하다. ‘비롯-’이나 ‘당, 분’이 어근이란 점은 공통되는 듯하다.

13) ‘하-’를 동사로 분류하지만 논자에 따라 ‘기능동사, 경동사, 대동사’ 등으로 세분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그 논의를 보류한다.

못하다, 삼가하다'는 모두 합성어로 분류될 것이다.

합성어를 형성하는 ‘하-’는 현대한국어에 와서 ‘시키-’와 ‘드리-’로 대체되는 경향이 있다. 먼저 ‘시키-’의 예를 (11)에서 보자.

(11) ㄱ. 포함하다 : 포함시키다

 ㄴ. x는 y를 포함한다./포함시킨다.

 ㄷ. 포함을 하다 : 포함을 시키다 : *포함을 하게 하다

(11 ㄱ)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함하다’를 ‘포함시키다’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11 ㄴ)에서 보듯이, ‘x가 y를 포함하다’라고 할 것을 ‘x가 y를 포함시키다’라 하는 것이니 ‘하-’의 자리를 ‘시키-’가 차지하는 것이다.

‘시키-’(>시키-)는 한국어의 중세 말 또는 근대 초에 등장한 단어다. ‘시키-’는 나중에 사동형 ‘히-’ 또는 ‘히게 히-’를, 아니면 둘 다를 대체하게 되었다.¹⁴⁾ ‘벼슬히이다’가 ‘벼슬시키다’로 대체된 것이 그 예인데 이 경우에는 사동형인 ‘히-’를 ‘시키-’가 대체한 것이다. ‘시키-’는 20세기에 이미 ‘하-’를 대체하기 시작한다. 최현배(1937;415-418)에 “세상에는 흔히 ‘시키다’(시키다)를 그릇 쓰는 수가 있나니…”라고 지적한 바 있다.(이에 대한 논의는 서종학2011;210 참조) ‘시키-’가 사동형 ‘히-’가 아닌 ‘하-’를 대체한 것은 (11 ㄱ)을 통해서 알 수 있다.¹⁵⁾

‘하-’를 ‘시키-’가 대체하는 과정을 (11 ㄷ)에서 볼 수 있다. 즉, ‘포함하다’를 ‘포함을 하다’의 구조로 바꾸고 ‘포함’이 목적어이니까 사동의 의미를 지닌 ‘시키-’를 대신 사용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포함시키다’에는 사동의 의미보다 타동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 할 것

14) ‘시키-’ 또는 ‘히-’를 표기한 것으로 ‘슌-’를 들 수 있다.(서종학2004 참조)

15) ‘히-’ 또는 ‘히게 히-’를 ‘시키-’가 대체하는 과정과 ‘하-’를 ‘시키-’가 대체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달리 논할 필요가 있다.

이다.

그런 한편, ‘드리-’가 ‘하-’를 대체하는 경우를 (12)에서 볼 수 있다.

(12) ㄱ. 감사하다 : 감사드리다

ㄴ. 감사를 하다 : 감사를 드리다 : *감사를 주다

ㄷ. 나는 어버이 은혜에 감사한다/감사드린다.

ㄹ. 나는 어버이께 감사한다/감사드린다.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사하다’를 ‘감사드리다’로 사용하는 경향이 많다. ‘드리-’는 ‘주-’의 존대 형태인데 이것이 ‘하-’를 대체하게 된 것이다. ‘드리-’가 ‘하-’를 대체하는 과정도 (12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명된다. ‘감사하다’를 ‘감사를 하다’로 바꾸어 놓고 ‘하다’의 자리에 ‘주다’의 존대 형태인 ‘드리다’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하-’는 ‘주-’의 의미가 아님은 분명하다. ‘나는 어버이 은혜에 감사한다.’란 문장을 예로 들자면 ‘감사하-’를 ‘감사드리-’로 대체하는 것이 부자연스럽지만 대개 허용하는 듯하다. ‘나는 어버이께 감사한다.’란 문장에서는 ‘감사하-’를 ‘감사를 드리-’로 대체해도 허용될 듯하다.¹⁶⁾

‘시키-’와 ‘드리-’의 몇 예를 (13)에서 더 들어 본다.

(13) ㄱ. 선동시키다, 자극시키다, 강화시키다, 제적시키다 ……

ㄴ. 당부드리다, 부탁드리다, 축하드리다, 말씀드리다 ……

‘시키-’와 ‘드리-’가 ‘하-’를 대체한다는 사실은 이들이 계열 관계(paradigmatic relationship)에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계열 관계에 있다 함은 그 문법적 위상이 동일하다는 것을 뜻한다. ‘시키-’는 ‘하게 하-’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드리-’는 ‘주-’의 높임 표현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으

16) ‘드리-’가 ‘하-’를 대체하게 되는 과정은 따로 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므로 ‘시키-, 드리-’가 단어라 할 것인데 이들이 단어의 위치에 있다면 ‘하-’도 단어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¹⁷⁾ 이를 통해 ‘하-’가 단어이고 이와 통합된 ‘공부하-’ 등을 합성어로 분류한 앞의 논의가 타당하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4. 결론

한국어교육에서의 문법교육은 한국어문법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글이 한국어교육의 한 모퉁이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 글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작성되었다. 제2장에서 ‘하-’를 후행요소로 하여 조어되는 방식 중에 선행요소가 동사의 어근인 경우를 찾아내는 것이다. ‘비롯하다, 삼가하다’를 통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 2장의 논의 위에서 제3장에서는 이때의 ‘하-’를 ‘do’의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보고 ‘x하-’를 합성어로 분류하는 것이다. ‘x하-’를 합성어로 분류하는 이점은, ‘x하-’의 ‘하-’와 ‘x를 하-’의 ‘하-’를 모두 단어라고 분류함으로써 문법 기술의 간결성을 찾을 수 있다는 데 있으며 간결한 문법기술은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에게는 학습의 부담을 크게 덜어 주는 것이 된다.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외국어의 사례를 충분히 수집하여 논거로 활용하여야 했으나 그러지 못하였다.

17) ‘시키-, 드리-’가 문법화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들이 어휘적 의미를 상실하고 문법적 기능을 하는 경우에만 문법요소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강현화(2007). 한국어 표현문형 유형 분석, <한국어교육> 18-1, 국제한국어교육 학회. 1쪽~23쪽.
-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한국어교육 자료 총서 1)』.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창섭(1994). 국어의 단어 형성과 단어 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창섭(1997). ‘하다’ 동사 형성의 몇 문제, <관악어문연구> 22. 247쪽~267쪽.
- 남기심·고영근(1984).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남풍현(1975). 한자차용표기법의 ‘元’자고, <국어학> 3. 국어학회, 151쪽~161쪽.
- 민현식(2007). 구어적 통용과 문어적 오용, <문법교육> 6, 문법교육학회. 53쪽~113쪽.
- 서울대학교 국어연구소 편(2014). 『한국어교육학 사전』. (주)도서출판 하우.
- 서정수(1975). 『동사 ‘하-’의 문법』. 형설출판사.
- 서정수(1991). “하-”와 “되-”에 대하여, <어학연구> 27-3,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481쪽~505쪽.
- 서종학(2004). 차자 ‘슴는-’고, <구결연구> 12, 구결학회. 133쪽~155쪽.
- 서종학(2011). ‘시키-’의 통사와 의미에 대하여, <한민족어문학> 58, 한민족어문학 학회. 209쪽~237쪽.
- 柴公也(1992). ‘한자어+시키다’에 대한 연구 -재귀성·타동성·사역성·수동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 심재기(1982). 『국어어휘론』. 집문당.
- 이정근(1970). ‘비롯하다’型 造語研究, <국어교육> 16, 한국어교육학회. 51쪽~63쪽.
- 이정택(2004). 국어 경동사(light verb)와 동사범주 상충부의 의미구조, <인문논총> 12, 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5쪽~14쪽.
- 이현희(1986). 중세국어의 용언어간말 ‘-하-’의 성격에 대하여, <국어학신연구>, 탑출판사.
- 임흥빈(1979). 용언의 어근분리 현상에 대하여, <언어> 4-2, 한국언어학회. 55쪽~76쪽.
- 정재영(1996). 의존명사 ‘드’의 문법화, <국어학총서> 23, 국어학회, 태학사.
- 지은정(2009). ‘하-’의 문법범주 및 어휘유형,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현배(1937/1983).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 한송화(2006). 외국어로서 한국어 문법에서의 새로운 문법 체계를 위하여, <한국어교육> 14-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89쪽~314쪽.
- 허철구(1998). 조어법의 ‘시키-’에 관한 몇 문제, <서강어문> 14-1, 101쪽~131쪽.
- 허철구(2000). ‘하-’의 형태론적 성격에 대한 토론, <형태론> 2-2, 323쪽~331쪽.

44 이중언어학 제61호(2015)

김미연(Kim, Mi-yuen), 제1저자
영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학과 박사과정
38541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전화번호: 010-9355-8313
전자우편: wallow@naver.com

서종학(Suh, Jong-hak), 교신 저자
영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38541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전화번호: 010-9812-1122
전자우편: johasuh@hanmail.net

접수일자: 2015년 10월 20일
심사(수정)일자: 2015년 12월 21일
게재확정: 2015년 12월 23일